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1호 [부제 제25424호] 주제 105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혁명사적지 기념품공  
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  
정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박명순 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  
였다.

자나깨나 뵈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자  
기들의 일머리에 모신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  
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새차재 설레이었다.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향상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  
사적지 기념품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하며 현대적인 자크생산공  
정, 멜라멘수지제품생산공정 등을 더  
갖추어놓음으로써 기념품만이 아니라  
갖가지 인민소비품들도 생산하는 공장  
으로 전면시립대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온정길은 조치를 취해주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승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방대한 규모의 개진공사와  
현대적인 자크생산공정, 멜라멘수지제  
품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관철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  
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  
였다.

공장의 자크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학  
생 가방과 교복, 신발은  
물론 여러가지 인민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데 필  
요한 자크물을 원만히 생산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  
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국산화된 가방용천생산  
공정을 꾸려놓는데 이어  
만경대혁명사적지 기념품공  
장에 우리 식의 자크생산  
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천과 자크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안겨  
줄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  
하시였다.

공장에서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멜라멘  
수지제품생산공정도 훌륭  
히 꾸려놓았으며 기념품생  
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였다.

별됨으로써 공장의 변모를 완전히 일신시  
키고 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혁소개  
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서 1979년 12월에 창립  
된 만경대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에서는  
우리 혁명의 만년채보인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에게 안겨줄  
의의있는 기념품들은 물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품들을 생산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  
사적지 기념품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태어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1984년 8월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생산  
한 제품들을 보여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  
다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  
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크생산  
공정, 멜라멘수지제품생산공정, 기념품

생산공정, 제품검본실 등을 돌아보시  
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에서 가방, 신발, 체육용품 등을 완성  
하는데 필요한 수지자크, 금속자크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공정  
을 새로 꾸려놓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였다.

제직기, 생형기, 봉조기, 절단기, 검사  
기를 비롯한 모든 자크생산설비들이 최  
신식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원료  
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부속자  
재를 리용하여 자크를 생산하고있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고, 당의 국산화방침

이룩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이 맡고있는 임무  
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크생산을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자크의 형태와  
색깔을 다양화, 다색화할데 대한 문제,  
제품질제고사업에 큰 힘을 보는데 대한  
문제, 멜라멘수지제품의 가지수를 높이  
고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관리하며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신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 종업  
원들의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건설구상이 안아온 강성조선의 만년재부

## 홍건도간석지 1단계 준공식 진행

홍건도간석지 1단계건설이 완공되어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장소로 훌륭히 일떠섰다. 서해기슭에 펼쳐진 대자연개조의 창조물은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신각같이 펼쳐나선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지역자강의 정신과 사령결단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조국민영의 만년재부이다.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제압살해동족에서도 조선의 승리는 패자이라는 철리를 심장에 조야하고 만년시련을 헤쳐며 홍건도간석지건설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의 영웅적투쟁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홍건도간석지 1단계건설이 성과적으로 계속됨으로써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밑천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훌륭히 완공된 홍건도간석지 1단계 준공식이 6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변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펼쳐서 찬 경치 하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앙당위원회를 무상으로 사수 하사!》,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일성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반양애 빛내 이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기동지,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우동지와 고인호내각부총리, 관계부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총합기업소 일꾼들,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준공식은 시작되었다.

준공사를 김능우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일선단결의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해부구진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홍건도간석지 1단계 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



었다. 우수천년 사나운 파도만이 출렁이던 날마다 한가운데 수심리 세방이 뻗어나가고 4500정도의 간석지를 강성조선의 재부로 바꿀 운명의 최후의 현상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북도에 간석지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소를 내오도록 해 주시고 주체55(1966)년 8월 찬비를 맞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비단실간석지건설을 찾으셨으니 우리 나라 간석지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석지 건설을 기계화, 공업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굴착기, 배를 비롯한 장비들도 보내주시고 다사도 데게도간석지건설이 진행될 때에는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어 자력정쟁의 혁명정신이 매우 강한 기업소라는 문에 넘치

게로 맡겨주시는 최상최대의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영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간석지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홍건도간석지 1단계건설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면치 못 한 고무적 기조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건설자들이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일출몰의 투사들답게 홍건도간석지 1단계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총정사전을 과감히 벌려내 데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준비건설에 착수하여 작업도로와 제석장, 부두건설을 짧은

기간에 와타다 끝내고 기본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물거품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그는 대게도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말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립체전을 벌려 4년동안에 1만수천m에 달하는 4개의 방조제를 쌓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단위별, 기대별, 공업별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현장에서 이등사수를 하면서 철야근무를 벌였고 운전사들은 자동차들의 운행을 하루평균 22시간이상 보장하여 1000여리씩 달렸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을 깊이 간직할 기술자, 로동자들이 간석지건설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바다보강공법과 집중투석, 신속투석에 의한 방조제건설공법을 비롯한 합리적인 공법, 작업방법들을 장안도입하여 공사속도를 1.5배로 높인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까지

도, 한일일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대의를 현실로 꽃피워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든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방종당과 사상과 습경도, 발경음도 같이하는 열혈의 인간, 참된 혁명투쟁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기업소의 건설자들이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에게 만리마속도장조의 불길 높이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를 창조하여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전향당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소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와 과학기술을 만능의 보검으로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뚫고나가며 간석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후방사업자야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관철을 지니고 후방로대들을 더욱 공고히 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수준을 한계한 끌어올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북부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선동위원회를 줄기차게 밀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인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위력을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간석지건설자들과 모일참가자들의 다함없는 흥분과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속담아 서해기슭에 간석지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들어주고 헌치의 드린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끝없이 빛내이자

##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 《주체혁명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입무에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열기모임이 6일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도교,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대학위원회의 위원장 김태희의 보고에 이어 부총장 박병기, 초급당위원장 서정숙, 학부장 김성일, 학생 김경일이 도론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학입무 70년에 즈음하여 보내신 력사적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입무에 대하여》를 갈가이안은 전제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는 크나큰 격조로 열었다고 있으며 서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한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이 민족부흥선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교육혁명, 학생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끝없이 빛내이게 세계일류대학의 전례에 당당히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정은시대 김일성종합대학건설의 용대한 실재도를 결연 강령적지침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의의 요구에 맞게 대학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현대과학기술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기 위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장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인재육성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첨단과학기술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사고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정적과 본래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력사적

과업과 임무를 더 많이 꾸리며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부문을 세게 발전시켜 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비론, 유훈을 향구적인 강령으로 들어주고 대학사업전반에 걸쳐서 구현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계속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심장에 조야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 교령에 당중앙상사위원, 당정책결사관들의 혁명적기풍이 꼭 차란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대학으로서의 높은 권위를 띠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장조형인재육성과 첨단과학리, 기술상조를 기본으로 하는 일류대학의 특색을 혁명적기풍과 방법, 교육체계와 교수방법을 개선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우적주는 교수방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며 교육을

과연, 연구사들은 그 어떤 천지공과가 뒤따라야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만들어 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세계민방에 빛내이는 김정은동지의 제일주의, 제일전우, 새 세계 유승한 인제가 되기 위하여 분발하여 배우고 또 배우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교직원, 학생들은 지역자강의 정실력을 높이 발휘하기 필요한 교육실비, 과학연구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고 현대화하여 후방기지도 본인이 꾸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방침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영도영적에 뜨겁게 깃들여있는 대학의 교육과학실비들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지적적재능산기지를 더 많이 꾸리며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부문을 세게 발전시켜 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비론, 유훈을 향구적인 강령으로 들어주고 대학사업전반에 걸쳐서 구현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계속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장군님의 혁명대학으로서의 높은 권위를 띠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세계민방에 빛내이는 김정은동지의 제일주의, 제일전우, 새 세계 유승한 인제가 되기 위하여 분발하여 배우고 또 배우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 인민들에게 맛 좋고 질 좋은 샘플을 더 많이 안겨주자

## 룡악산샘물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입무에 대하여》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열기모임이 6일 진행되었다.

룡악산샘물공장 총장 김태희의 보고에 이어 부총장 박병기, 초급당위원장 서정숙, 학부장 김성일, 학생 김경일이 도론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학입무 70년에 즈음하여 보내신 력사적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입무에 대하여》를 갈가이안은 전제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는 크나큰 격조로 열었다고 있으며 서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한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이 민족부흥선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교육혁명, 학생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끝없이 빛내이게 세계일류대학의 전례에 당당히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정은시대 김일성종합대학건설의 용대한 실재도를 결연 강령적지침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의의 요구에 맞게 대학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현대과학기술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기 위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장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인재육성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첨단과학기술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사고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정적과 본래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력사적

과업과 임무를 더 많이 꾸리며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부문을 세게 발전시켜 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비론, 유훈을 향구적인 강령으로 들어주고 대학사업전반에 걸쳐서 구현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계속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장군님의 혁명대학으로서의 높은 권위를 띠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세계민방에 빛내이는 김정은동지의 제일주의, 제일전우, 새 세계 유승한 인제가 되기 위하여 분발하여 배우고 또 배우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높이 발휘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한 미풍

##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 받들어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무평하라는것입니다.》

사회주의조건을 떠메고나갈 일념의 주인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인계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이 땅에 만사함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피어 태어나고 있다.

각지의 많은 양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결정체로 일떠선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찾아 원아들의 생활을 육원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피고있다.

중앙정보국의 일꾼들은 지난 3월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생활지수들을 원아들의 가슴마다에 인계주었으며 원아

들에게 주어진 생일상까지 차례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상업성에서는 지난 7월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적속에 나라의 중흥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건설된 평양중흥학원 원아들에게 많은 량의 식료품들을 보내주었으며 최상급과 최복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1월과 4월 내부예비물적구 탐구동원하고 여가시간을 희생하여 여의까지 아동옷들을 성의껏 만들어 함축적아원 원아들에게 인계주었다.

강원도인민보안국 보인원들과 서경안해포경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원아들의 생활을 성실성으로 보살피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꾼들이 원아들의 생활을 원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기 위한 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꾼인 문인원동무는 지난 3월 중흥학원을 졸업하는 수십명 원아들에게 새옷과 손수건을 인계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언처럼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앞으로 일을 잘하자고 호소하였다.

해산시당위원회 일꾼인 리경호동무는 지난 7월 많은 지원봉사자들을 원아들에게 인계주어 그들이 어머니당을 따라 영연히 한길을 갈 굳은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가슴속에는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태같이 되어 버려진데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성관행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부하는 인민의 참된 행복,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가 심장의 박동인양 오늘날 새자세로 울리고있다.

각지의 근로자들도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영광군 동흥리 리경일동무는 지난 3월과 5월 원아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마음을 안고 여의의 악기들을 마련하여 함축에육원에는 보내주었으며 평안남도교수강습소 한길철, 덕천시 승리동 김우현, 원산시 북방중학교 동우동무를 비롯한 각지의 근로자들이 원아들의 원부모, 원

형제가 되어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각지에 일떠서고있는 초동학원, 중동학원전설설장들에서도 날날이 꽃피고 있었다.

우리 원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행복의 요람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일떠서고있는 전국 초동학원, 중동학원전설설장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오고 있다.

함경북도제민관리회 도동자정일동무는 지난 4월과 7월 중흥중동학원전설설장을 찾아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육아원마당에서 원아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를 들려주시는 자어로는 영상유 텔레비전화면에서 비유고그이의 원아들이사랑에 눈물을 글썽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마련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넘겨주었다.

평안북도농촌경제위원회 일꾼인 리해정동무는 지난 6월 2차에 걸쳐 안혜와 함께 많

은 지원봉사자들을 안고 학원전설설장에 찾아가 한공의 그날을 앞당겨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백두산영웅정리관 돌격대원 주은하동무는 지난 8월 초 휴가를 받고 집에 도착하는 그 길로 수심비 떨어지려는 황주중동학원전설설장에 달려가 벽제미장떡을 전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백두정혼의 아름다운 풍모를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남포시 와우도구역 동정동에서 살고있는 특유영애군인 황명근동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초동학원, 중동학원전설설을 불심방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각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이틀처럼 후대들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때 우리 원아들은 한결의 그늘도, 한순간의 실음도 모르고 세상에 부림없이 마음껏 자라날것이며 강할때 내 조국의 때일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리신향

교단에 피어난 꽃송이들

영애군인들의 참다운 혁명동지가 되어 혁명의 꽃을 함께 피워가고있는 청년들속에는 황산군 가라고중학교 교원 리은희동무와 신의주시 마전초중학교 교원 황은정동무도 있다.

황산군 가라고중학교 교원 리은희동무는 지난해 3월 31일 영애군인 김홍국동무의 장정을 찾아 성실성의 토를 는 나날을 그와 일생을 함께 할 결심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

황해남도 배천군 룡학미생물비료공장 룡동자신 류선봉동무는 지난 2월 초 정촌리에 사는 특유영애군인 김홍일동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영애군인의 가정을 찾아갔던 류선봉동무는 그의 형도 조국보위초소에서 한몸마져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므로 동생은 오늘도 종대병사로 살고있다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형제모두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로 키워 내세운 이 가정의 훌륭한 애국가송에 대하여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 2월 특유영애군인

## 혁명의 꽃을 함께 피워가리

찾아 수년간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던 나날에 그와 일생을 같이하기로 약속하였다.

황은정동무는 자기의 자기만한 소행도 크게 여기고 제 2차 전국청년비료생산자대회에 참가해서 영평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인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해갈 결의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지였다.

올해 뜻깊은 당생전기념일을 앞두고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들에게 인민들은 뜨거운 축하를 보내고있다.

원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김홍일동무와 일생을 약속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청년전진속행사태 포로 참가하여 붙여놓았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서는 한생을 당의 참된 딸로 살 명세를 다졌습니다.》

삼천군 달천보배사업소 노동자였던 김명봉동무 역시 어머니당의 뜨거운 축하속에 지난 5월 특유영애군인 차영길동무와 행복의 새 가정을 이루었다.

한해전 6월 달천영애군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꺼지지 않겠다고 억구내에 마음을 전하고있어요, 그들은 다 품인인 함복도사람들이예요, 시금치 3송과 4송에 식당들을 전하고 그들의 속식조건을 보 장합니다.》

얼마후 정양소마당으로 수심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깨끗한 오실실에 자리를 잡고 수심같은 식사를 한 일꾼이 구연속동무의 손목을 꼭 잡고 정말 곱잡다고, 그런데 크지 않은 정양소에 주는 부양이 그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자 구연속동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함복도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것이고, 오송원들의 속식조건은 넘어달라고, 한눈케 들어오는 호송원들을 위해서만 바는 식욕을 따듯이 잊혀주고 열차를 타고 머나는 호송원들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음식들도 준비해주는 구연속동무로 실어가야 할 세멘트오송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꺼지지 않겠다고 억구내에 마음을 전하고있어요, 그들은 다 품인인 함복도사람들이예요, 시금치 3송과 4송에 식당들을 전하고 그들의 속식조건을 보 장합니다.》

맞추한 성과 고무로 바래주는 사람들 뜨거운 마음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고쳐치는 사연을 안고 오늘도 북부피해부구전선행 열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두들기 캐도를 따라 힘차게 달린다.

은 나라에 울리는 북부피해부구전선행 열차의 기적소리, 그대는 당의 호소에 심장속으로 답답해나선 이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숨결이고 맥동이며 시련도 고난도 함께 웃으며 헤치는 이 땅에 영연히 울려퍼질 일심단결의 힘입니다.

신철



리은희동무가 원아들에게 인계하는 초선인민원

## 집단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

어느 단위, 어느 일이나 그러하듯 중앙정보통신국 종업원들속에 오던 세월 전쟁로병들과 영애군인들을 혁명선배로,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존대하고 돌보아주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애군인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지난 20일부터 20여년만 보충구진간을 1동에서 살고있는 영애군인의 집을 찾았을 한 단위가 있었다. 영애군인가정의 전회기상대를 알아보기 위해 나온 5근구의 현명동무였다.

그날 화안신이 마비된 몸이지만 군사부사들의 그 정신으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 영애군인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인계주었다.

그때부터 그의 발걸음은 영애군인의 집으로 향했다.

어느새 집집에는 가족과 함께 영애군인의 집을 찾아 사선도 적고 노래도 함께 부르며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고 또 언제인가는 뭉치 않고있는 영애군인을 위해 데려다지 얼마 안되는 자기 아들을 분간집에 맡기고 그의 집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 길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1분구 리해정동무도 보충장구역 봉화동에서 살고있는 한 특유영애군인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

어느날 친구이와도 같이 놀바주는 그에게 특유영애군인은 원적교육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는 자기의 후생관을 띠었다.

그러므로 며칠후 류류미와 함께 학습참고서를 안고 찾아온 리해정동무의 품에 특유영애군인은 《누님!》 이라고 부르며

세멘트를 가득 실은 열차들이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명덕을 떠나 북부피해부구전선으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우리는 그 기적소리와 더불어 전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인 기상과 본따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 어느날이었다.

명당에 역장방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한시바빠 북부피해부구전선으로 떠나보내야 할 학생들을 위한 방수포복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그들이 가지고있는것은 화물자동차들에 의지할수 없었다. 화차들에 의

## 북부전선행 열차의 기적소리가 전하는 이야기

울수 있게 하지만 많은 로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누구인가 그럴것없이 비날박으로 의욕하는 의견을 내놓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인민들이, 저 최자는 혁명의 수도 정양을 지나게 됩니다. 만약 비날박이 벗어지고 세멘트카부들이 날랐던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우기 비날박에 전하지 못합니다. 상원의 로동계급이 생산한 세멘트를 모으게 만들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어떤가 꾸미어가는것이였다.

그는 철도검찰소 책임검사 김현남동무였다. 얼마후 여러명의 사람들이 억구내로 들어섰다. 김현남동무가 베리고는 구두수리공들이었다. 그들은 억구내에 재공기들을 설치하고 돌리기 시작했다. 억구원들과 철도식공소원들도 마시실로 방수포복

이여갔다. 사위가 어두워지자 억구내에서 전지불빛이 번쩍이였다. 맑고더로 억구내는 전루정조로 화되었다.

그날 명당의 새벽공기를 헤기며 기적소리가 전선으로 떠나는 열차를 오때도 마래우는 그에게 누구인가 말했다. 김사가 그렇게까지 열애야 하는가고, 김사의 임무야 마르있지 않가고.

그때 김현남동무는 오늘의 피해부구전선에서는 내일내일이 마르 없다. 나도 200일전투의 함정지이다라고 말했다.

높이 울려가는 중흥의 기적소리는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정양소 소장 구연속동무와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도 함께 전하고 있다. 지난 9월 어느날 깊은 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정양소의 이 한 방에서는 구연속동무의 열거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지금 북부피해부구전선으로 실어가야 할 세멘트오송을

우와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복도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이런 사람들의 지지와 고무가 있는애 애로와 난관이 무엇이냐. 오늘도 상원방에서는 이런 가슴뜨거운 화물들이 배들과 같이 펼쳐지고있다.

맞추한 성과 고무로 바래주는 사람들 뜨거운 마음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고쳐치는 사연을 안고 오늘도 북부피해부구전선행 열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두들기 캐도를 따라 힘차게 달린다.

은 나라에 울리는 북부피해부구전선행 열차의 기적소리, 그대는 당의 호소에 심장속으로 답답해나선 이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숨결이고 맥동이며 시련도 고난도 함께 웃으며 헤치는 이 땅에 영연히 울려퍼질 일심단결의 힘입니다.

신철

##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리

직맹, 녀맹, 농근맹 일꾼들과 동맹원들

을 내리보내주고 선전선동력향용 주요전투장들에 파견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돌리여키는 현정경제선에서 일일이 벌어지게 하였다.

황해남도직맹위원회에서는 총정의 200일전투에 전진하여서 도급단위 직맹이동해결장사 경제선동태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경제선동태복합과 중흥, 마이로, 축전지를 마련해주어 황해제민관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전투장들에 경제선동태복합을 확충하여 벌일수 있게 하였다. 남포시내맹위원회에서는 시인의 내맹일꾼들과 초급선일꾼들이 일동시동태복합과 직맹, 10여건의 정황선동태복합을 구비하고 정치사업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연의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일꾼들의 수련을 높여주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고있다.

함경남도농근맹위원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직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제 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학습일용을 세차게 일으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공의 심정에 불을 지펴나갔다. 현재지구관할합기업소 직맹위원회와 삼천군내맹위원회, 구장지구관할합기업소 직맹위원회와 평안남도농근맹위원회, 신원군내맹위원회와 평안북도농근맹위원회, 평안남도직맹위원회, 덕천지구관할합기업소 내맹위원회, 황해남도직맹위원회와 농근맹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직맹, 농

직맹, 녀맹, 농근맹 일꾼들과 동맹원들

을 내리보내주고 선전선동력향용 주요전투장들에 파견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돌리여키는 현정경제선에서 일일이 벌어지게 하였다.

황해남도직맹위원회에서는 총정의 200일전투에 전진하여서 도급단위 직맹이동해결장사 경제선동태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경제선동태복합과 중흥, 마이로, 축전지를 마련해주어 황해제민관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전투장들에 경제선동태복합을 확충하여 벌일수 있게 하였다. 남포시내맹위원회에서는 시인의 내맹일꾼들과 초급선일꾼들이 일동시동태복합과 직맹, 10여건의 정황선동태복합을 구비하고 정치사업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연의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일꾼들의 수련을 높여주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고있다.

함경남도농근맹위원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직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제 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학습일용을 세차게 일으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공의 심정에 불을 지펴나갔다. 현재지구관할합기업소 직맹위원회와 삼천군내맹위원회, 구장지구관할합기업소 직맹위원회와 평안남도농근맹위원회, 신원군내맹위원회와 평안북도농근맹위원회, 평안남도직맹위원회, 덕천지구관할합기업소 내맹위원회, 황해남도직맹위원회와 농근맹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직맹, 농

근맹, 녀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 경쟁과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여 200일전투의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일꾼들과 동맹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민중대구역상수도관리소 노동자 안인성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려는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될 결심을 안고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자금을 매수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자재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대한 불공급사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원산시 김대영 녀맹원 김경순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녀맹원들은 영애군인남녀들과 함께 수도의 중요건설공에 3차에 걸쳐 찾아가 40여건의 경제선동태를 진행하고 지원봉사도 넘겨주어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자성군 자카리초급내맹위원회 장 피남순, 남포시 천리마구역 중흥초급녀맹위원장 비명희, 녀맹원인민맹원 초급직맹위원장 강금희, 도산군인민맹원의 사조수남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근로단체일꾼들과 동맹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주의적미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해나서는 각급 직맹, 녀맹, 농근맹조직들과 일꾼들, 동맹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200일전투의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

인 일정책이 세워졌다.

다음날 작은 유치원운동장으로 자레를 가득 실은 자동차와 함께 인민보안원들이 들어섰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있는 유치원원장에게 미성근동무는 말했다.

《우리 손을 맞잡고 유치원을 당에서 바라내도 돌볼수 있려 봅시다.》

이때부터 유치원을 개건하기 위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민보안원들은 일꾼들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인민보안원들의 가족들도 먼 처나갔고 마을사람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건설을 책임진 최인한동무는 불현듯 물어있지만 이렇고 힘들 때마다 평양의 하늘을 웃음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곧 인민보안원 최인한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돌격대가 조직되었고 구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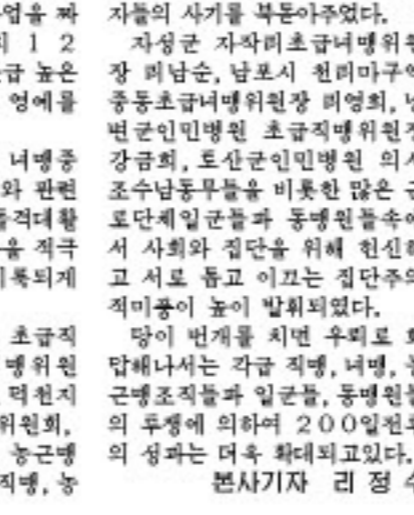
게 지원사업에서 모범인 종업원들을 적극 내세워주는 한편 생산물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짜고들고있다.

지금도 이들은 원산시 당위원회와 지도부에 함복도 북부피해부구전선행 열차를 뜨게 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흥이 크면 시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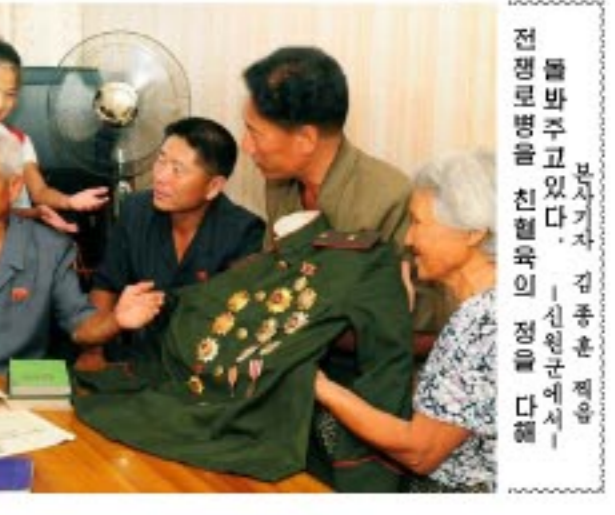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본사기자 김정훈 씨를 비롯한 일꾼들의 정열을 다스리



본사기자 김정훈 씨를 비롯한 일꾼들의 정열을 다스리



본사기자 김정훈 씨를 비롯한 일꾼들의 정열을 다스리

